



지난 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결승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광주FC 선수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광주FC

‘선수 등록 불가’ 광주, 흑독한 겨울서 돌파구 찾을까



광주FC 2025시즌 결산-하

연대기여금 미지급 여파로 징계 조성권·오후성 등 주축 9명 FA 재계약 집중·내부 자원 등 육성

올 시즌 역대급 시즌을 보낸 광주FC에게는 흑독한 겨울이 기다리고 있다. 대체불가 사령탑 이정호의 이적설과 함께 선수 등록 금지 징계까지 겹쳐졌기 때문이다.

이정호 감독은 2022년 광주FC 제7대 감독으로 부임한 이래 구단 세력사를 이끌어왔다. 부임 첫해

에는 K리그2 역대 최다 승점(86점)으로 다이렉트 승격을 이뤄냈다. 이후 창단 첫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및 K리그 시도만구단 최초 8강과 구단 최초 코리아컵 준우승 등 구단의 역대 최고 성적을 이끌었다.

지난 4년간 구단의 황금기를 이끌어온 과정에서 이 감독의 이적설 또한 꾸준히 제기됐다. 올해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등 해외 클럽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는 이정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지난 9월 공식 입장을 통해 최고 예우와 시스템 혁신을 약속하며 적극적인 재계약 의사를 밝혔다. 그의 성과를 인정하며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 감독과의 재계약 문제 이외에도 광주는 새 시즌 선수단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앞서 광주는 지난 9월 국제축구연맹(FIFA)으로부터 선수 등록 금지 조치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향후 두 차례 등록기간 동안 신규 선수 등록 금지 징계를 받았다.

지난 2022년 외국인 공격수 아사니(현 에스테그) 영입으로 발생한 연대기여금 3000달러를 송금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비록 두 번째 등록 금지 징계는 유예됐으나, 내년 상반기 정기 선수 등록 기간에는 신규 선수를 등록할 수 없다. 새 시즌 전력 강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겨울 이적시장의 길이 막힌 것이다.

내부 자원만으로 리그 초반을 버텨야 하는 상황에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다.

광주는 올해를 끝으로 9명의 선수가 자유계약(FA) 자격을 취득한다. 공격수 김한길·하승은, 미

드필더 오후성·이강현·주세중, 수비수 안영규·이민기·조성권, 골키퍼 김태준 등 대부분이 주축 선수들이다. 외부 영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들을 대체할 스쿼드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에 광주는 내부 FA 자원 재계약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에는 선수 등록이 불가능한 만큼, 재계약 선수들을 모두 잡아야 하는 입장이다”며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선수들도 있다. 이달 말쯤에는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FA 자원인 주장 이강현과 핵심 수비수 변준수는 국군체육부대(김천상무) 입대를 앞두고 있기도 하다.

입대 선수들의 이탈 역시 압박이다. 올 시즌 각각 23경기, 19경기를 소화하며 주전으로 활약한 진시우와 심상민의 입대 계약이 끝나 원소속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

새 전력 추가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총 12명의 이탈 가능성을 고려한 체 내년 시즌을 맞이해야 하는 처지다.

물론 광주가 손 놓고 있지만은 않았다. 지난 2일 U-18팀인 금호고등학교 축구부에서 수비수 공배현·김용현, 미드필더 정규민을 프로로 끌어올린 데 이어 구단 역사상 최초로 준프로 계약을 체결한 공격수 김윤호와 프로 계약을 마쳤다. 하지만 경험미가 적은 어린 선수이기에 즉시 전력감이라고 보긴 어렵다.

결국 광주가 내년 시즌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존 자원들을 최대한 지켜내고, 이들이 팀의 중심을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 유망주들도 키워내면서 다시 선수 등록이 가능한 여름 이적시장까지 버텨내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다.

다양한 새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광주가 흑독한 겨울을 견디고 황금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 광주시체육회 ‘2025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



광주시체육회는 최근 빛고을체육관에서 체육단체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육성팀 단체장 등 광주 체육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체육 위상 높인 주역들, 내년 더 빛나길”

광주시체육회가 올 한해 광주 지역 체육발전에 기여한 체육인들을 격려하고 내년 도약을 다짐했다.

10일 광주시체육회에 따르면 지난 9일 빛고을체육관에서 체육단체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육성팀 단체장 등 광주 체육인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광주체육 유공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25년 한 해를 빛낸 광주체육인에 대해 시상상, 의장상, 교육감상, 체육회장상 등을 시상했다.

특별공로에는 김광아 광주시양궁협회장이 선정돼 공로패를 받았다.

김광아 회장은 그동안 광주양궁을 이끈 체육계 여성 원로로, 올해 광주세계양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지원, 광주지역 양궁대회 확대 등 양궁 종목 발전과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한 공을 인

고광구 광주시청 감독·홍혜선 광주체고 지도자 ‘올해의 상’

수피아여고 농구부·시아구소프트볼협회 ‘올해의 단체’ 선정

정받았다.

올해의 상도 수여했다. 올해의 단체는 수피아여고 농구부와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가 선정됐다. 수피아여고는 제106회 전국체전에서 29년 만에 우승하는 쾌거를 이뤘다. 야구 동호인 저변 및 대회 확대 등 야구 종목 활성화에 기여한 광주시야구소프트볼협회는 생활체육 분야 올해의 단체로 뽑혔다.

올해의 감독에는 전국체전 역대 종목에서 손현호(광주시청)가 대회 3관왕에 오르는 데 지도역량을 발휘한 고광구 감독이, 올해의 지도자에는 신재이(광주체고)가 대회 한국주니어신기록

을 달성하는 데 기여한 홍혜선 핀수영 지도자가 선정돼 상을 받았다.

역도 손현호는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의 대회에서도 최고의 기록을 내 올해의 선수상을 받는 영예를 안았다.

올해의 클럽에는 지역 스포츠 문화 발전 및 참여 확대, 특히 클럽 학생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공을 인정받아 동강공공스포츠클럽이 선정됐다. 생활체육 부문 올해의 지도자는 임은자 북구체육회 지도자가, 올해의 동호인에는 유연술씨(광주시패러글라이딩협회)가 선정돼 상을 받았다.

체육회 및 회원단체에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은 기업·기관 중 광주은행 등 10곳이 선정돼 감사패를 받았다. 그 밖에도 광주시장 표창에 이명식 목송산업개발주 대표 등 13명, 광주시의회 의장 표창에 이현식 에이스그룹 대표 등 13명, 광주시교육감 표창에 성자영 광주체고 레슬링 감독 교사 등 12명이 선정돼 표창장이 돌아갔다.

전갑수 광주시체육회장은 “올 한해 각자 위치에서 애써주신 광주체육인들 덕분에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일일이 말씀드리기 버거울 정도로 값진 성과들이 많은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올해를 발판 삼아 내년에는 더욱 빛나는 광주체육, 특히 제주 전국체전에서는 10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전남도장애인체육회는 최근 전남도체육회관에서 도내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48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을 앞두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중심으로 진행됐다.

교육 과정은 △응급처치 요령 △응급상황 시 행동지침 △성인 및 영아 대상 기본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 △기도 폐쇄 환자 응급처치 등으로 구성됐으며, 참가자들은 이론과 실습 과정을 통해 실제 상황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실전 능력을 강화했다.

박정현 전남장애인체육회 상임부회장은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해 장애인체육 참가자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지도자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앞으로도 지도자들의 전문성과 안전의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하중 기자 hajong2@gwangnam.co.kr

